

7-2강 file no.1 생략

7-2강 file no.2

## 7주-2회차 학습목차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4: 이론
-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5: 공헌
- 5. W. James: 종합
- 6. 기능주의 심리학
  - <6.1. 서론>
  - <6.2.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철학의 영향 >
  - <6.3.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와 심리학>
  - <6.4. 기능주의 심리학의 꽃핀>
  - <6.5. 미국심리학이 드디어 '의식'을 버림>
  - <6.6. 기능주의 특성 요약 표>
- 7. 기능주의: 종합 정리

07-2-2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7주 2회차 강의,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과 기능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 2회차 학습 목차를 보시면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에 대하여 그의 이론의 세부와 공헌,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종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기능주의 심리학과 관련하여서 기능주의 심리학이 일어난 19세기 말 20세기 미국의 여러 가지 배경들, 그 다음에 기능주의 심리학이 발전하게 된 전말. 그 다음에 미국 심리학이 드디어 의식을 버리고 변화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기능주의 종합 정리의 순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강 file no.3

## 7주-2회차 학습목표



- 1.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구체적 이론 내용을 파악한다.
- 2. 기능주의 심리학이 형성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한다.
- 3. 기능주의 심리학의 대표적 학자들의 면면과 그들이 주장을 파악한다
- 4. 기능주의 심리학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을 배태하였는가를 이해한다.
- 5. 기능주의 심리학과 분트의 심리학의 주요 차이점을 파악한다

07-2-3

다시 말하면, 7주 2회차 강의의 학습 목표는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의 구체적 이론 내용을 파악하고 미국에서 기능주의적 심리학이 형성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고, 기능주의 심리학의 대표적 학자들의 면면과 그들의 주장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능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배태되었는가를 이해하고, 기능주의 심리학과 분트 심리학의 주요 차이를 파악합니다.

7-2강 file no.4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4: 이론



- <이론일반>
  - - 심리학의 주제는 의식의 흐름 (stream of consciousness): immediately felt experience
  - - 이를 분트나 Titchener처럼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오류임:
    - Psychologist's fallacy
    - 마음 내용의 복합내용을 분석하여 요소로 분석하고, 마치 그 요소가 거기에 원래부터 항상 존재하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의 본질적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임.
  - - 의식의 contents보다는 function (what it does)이 더 중요함
  - - 의식의 기본 기능: 유기체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게 함
  - - 조각가가 돌로 조각하듯이 환경 자극에 작용하여 목표를 이룸

07-2-4

### 4. 윌리엄 제임스 4: 심리학 이론 세부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7주 1회차에 이어서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을 소개하였다면, 여기서는 먼저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의 세부와 그의 이론적 공헌을 다루겠습니다. 실용주의 철학(pragmatism)을 이끌었던 철학자로서의 그의 역할과 주장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1: 의식]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의 첫 번째는 심리학적 주제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제임스는 심리학의 핵심 주제를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껴진 의식 경험의 흐름을 심리학의 핵심 주제로 보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의식을 분트나 티치너처럼 의식 요소로 분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을 '심리학자들의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마음 내용의 복합 내용을 분석해서 요소로 분석하고 마치 그 요소가 거기 원래부터 항상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의 본질적 요소

로 생각하는 분트나 티치너 식의 생각은, ‘심리학자들의 오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의 내용보다는 기능(function), 즉 의식이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의식의 기본 기능은 유기체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각가가 돌로 조각하듯이 의식이 환경자극에 작용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에게서 의식의 작용, 기능, 과정 등에 학문적 초점이 주어졌지 의식 내용 요소에 초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7-2장 file no.5



- - 의식은 유기체에게
  - 1. 흥미, 목표를 부여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서)
  - 2. 선택을 함 -> 행위 -> 목표 달성
  
- - 인간 마음의 생리적 기초 측면 인정
  - 뇌가 인간의 심적 작용을 수행하는 조건임
  - 기계론적 생리학적 입장과
  - 자유의지를 지니고 의식하고 선택, 결정하는 마음의 측면의 양면성/모순성 내재
  -

07-2-5

그에 의하면, 의식은 유기체에게 흥미, 목표를 부여하는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의식은 그냥 수동적인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능동적인 목표 달성 행위,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마음의 생리적 기초 측면을 인정하며, 뇌가 인간의 심적 작용을 수행하는 조건이고, 기계론적 생리학적 입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마음의 측면의 양면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의식을 주의, 의지와 관련지어서 보면, 제임스에 의하면 의식의 흐름은 여러 특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 (Personal한 것), 두 번째는 ‘Constant Flux’, 즉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속성, 즉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식은 항상 선택적이다(constantly selective)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은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어떤 한 순간의 의식은 항상 일부분에만 주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ransitive states'로, 그러니까 변화하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결된 상태보다도 변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2장 file no.6

7-2장 file no.7

7-2장 file no.8



- <세부주제 이론1: 의식: 주의, 의지>
- - 의식의 흐름은 여러 특징들을 지님
- 1. personal:
  - 생각은 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일반적 마음에 속하는 것이 아님
- 2. constant flux:
  - 끊임없는 변화; 동일한 생각, 감정 이란 없다. 시간상에서 계속 변화
- 3. continuous:
  - 의식의 흐름의 자연적 흐름은 없다. 경험된 연속성만 있고, 그 강도와 변화 속도에서 들쭉날쭉 할 뿐이다.

07-2-5



- 4. constantly selective: 의식의 내용은 풍부하지만 어떤 한 순간의 의식은 항상 일 부분에만 주의하게 된다.
- 5. transitive states: 구체적으로 일반화-추출된 명추어 있는 내용으로서의 substantive states 마음의 내용 못지않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식상태 자체가 중요하다. 이는 내성을 하기 힘들다. 애매하고 통일성이 없다. (무심상 사고)
- -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 애매:
  - 의식의 원자요소 존재, 요소주의 구조주의적 접근에 대하여 회의적, 비판적

07-2-7



### ● <세부주제 이론2: 정서>

- 정서란 특징적인 신체적 표현이다.
- 확실한 생리적 부산물을 수반하지 않는 심리과정과 직접적으로 쉽게 관찰 가능하고 변화가 발생하는 심리과정을 구분
- 의식적 자각이 정서 그 자체
- 수의적인(voluntary) 근육 활동의 역할 강조.

07-2-2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2: 정서(감정)]

제임스가 다룬 심리학의 세부 주제의 두 번째 주제는 정서를 들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정서란 특징적인 신체적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1) 확실한 생리적 부산물을 수반하지 않는 심리과정과, (2) 직접적으로 쉽게 관찰가능하고 변화가 발생하는 심리과정을 구분했으며, 신체적 활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정서이론은 후에 네델란드 심리학자 랑게(Carl Lange)라는 다른 학자의 이론과 합쳐져서 'James-Lange 정서이론'이라고 불려졌습니다.<sup>1)</sup>

7-2장 file no.9



### ● James-Lange 이론

- 우리의 정서 체험은 신체적 변화가 먼저 오며, 우리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지각하여 특정한 정서를 느낀다.
-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무섭다.

07-2-9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정서적 체험은, 신체적 변화가 먼저 오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지각(인지)해서, 그 결과로 특정한 정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 보니까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7-2장 file no.10



### James-Lange 이론

- 정서 경험은 정서 유발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자각임
- 정서유발 자극 → 신체의 생리적 반응 → 정서 생성



-2-11

1) 윌리엄 제임스와 네델란드의 심리학자 칼 랑게는 이와 같은 정서 이론에 서로의 영향 없이 각기 독자적으로 도달하였고, 제임스는 정서를 “the feeling of bodily changes which follow the perception of an exciting event,”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정서에 대한 논의를 도외시하였던 유럽의 합리론 전통과는 달리, 정서에 대한 심리적 과정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심리학적 정서이론이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여 [제임스- 랑게의 정서] 이론을 보면, 먼저 정서 유발 자극이 제시되면, 그 것에 대해서 신체 생리적 반응이 나오고, 그런 신체 생리적 반응의 결과로 정서가 생성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7-2강 file no.11



- 자극 (호랑이)
  - -> 신체적 변화 (위, 내장, 도망 등 근육 등의 급격한 변화) -> 신체적 변화 인식 -> 정서
- - reflex theory of the brain
- <James-Lange> 이론 ; 분노, 기쁨 중심
- - 의의: 1. 정서의 논의에 생리적 결정론을 도입
- 2. 신체적 변화가 인지에 선행됨에 대한 언급
- 정서에서의 신체적 움직임 형태와 안면 표정 등의 중요성을 언급. 즉, 심장 박동수와 같은 자동적인 피드백의 느낌과 자세나 안면 표정과 같은 근육의 피드백 자체가 정서를 구성한다.
- 따라서 각 정서마다 독특한 생리적 패턴이 있고, 이것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해 설명해 준다

07-E-12

부연하여 더 설명하자면, 이 이론에 의하면 호랑이를 보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심리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극을 보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인식하면서 정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정서의 논의에 생리적 결정론을 도입해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지각이(인지가) 선행되어서 정서가 일어난다는, 즉 정서 반응에서 신체적 움직임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그런 신체적 움직임의 되먹임(feedback) 또는 그 것에 대한 인식이 정서를 가져온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7-2강 file no.12



- 다양한 정서들이 있고, 각 정서마다 표현 형태, 기능, 진화적 역사의 고유성이 있음을 전제하였다. 또한 그는 적절한 근육의 활동이 정서를 흥분, 억제시킨다
- 내장 반응의 중요성이나 안면 표정 등에 관해서는 이후 Ekman이나 Izard에 의해 다시 강조되고 있음
- <- 비판: 그런데, 신체 부분 수술하여도 정서 경험, 그렇다면 신체적 변화 선행 중심의 정서 이론은 문제 있음

07-E-12

제임스는 정서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며, 인간의 정서는 진화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적

절한 근육 활동이 정서를 일으키기도 하며 또한 억제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정서가 일어남에 서의 근육활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후에 심리학자 P. Ekman이나 C. Izard 등의 연구에서 정서 상태에서의 안면근육운동이 결정하는 안면 표정이나 또는 정서 유발 시에 일어나는 내 장 반응 등이 언급되는데, 이는 제임스의 정서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7-2강 file no.13

### James-Lange 이론 평가



- Cannon's 반론:
  - 내장 반응은 정서보다 느리다
  - 같은 내장 반응이 다른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
    - (심장 펄: 분노, 기쁨)
- 이후의 연구 결과들이 지지하는바:
  - 정서가 다르면 다른 내장 반응과 연관
  - 사고로 척추를 절단되어 내장반응 신호가 전달 안되면 정서 반응이 크게 약화됨

07-2-13

‘제임스-랑게 정서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그 후에 나왔는데, 비판론을 전개한 캐논(Walter Cannon)의 정서 이론은(이것은 하버드대 교수였던 캐논과 그의 제자 Philip Bard의 생각이 연결되어 Cannon-Bard 이론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장 반응은 정서보다 느리다 라든지, 같은 내장 반응이 서로 다른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든지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체적 반응이 정서를 결정한다’고 보는 제임스의 입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서가 다르면 다른 내장반응과 연관이 있다든지, 사고로 인하여 척추가 절단되어서 내장 반응 신호가 전달이 안 되면 정서 반응이 크게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제임스의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2강 file no.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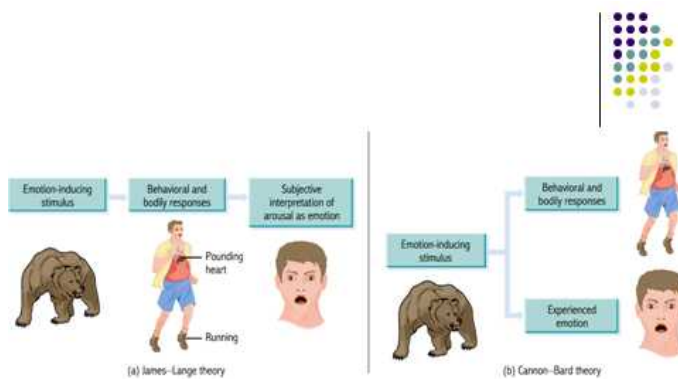


- 상식적 견해:
  - 상황의 지각-> 정서적 느낌-> 신체적 변화
- James이론:
  - 지각-> 운동반응-> 내장자극-> 이에 대한 인지 -> 정서적 변화
- Cannon의 견해
  - 지각 -> 시상하부의 각성 -> 정서적 느낌 and -> 신체적 변화

07-2-14

상식적으로 우리는 ‘상황을 지각하고 정서를 일으키고 그것에 따라서 신체적 변화가 온다.’ 라고 보는데 ‘제임스-랑게’의 이론은 반대로, 상황을 지각하고 신체적으로 운동 반응이나 내장 반응에 이르고 그런 신체적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이 정서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편 캐논 등의 입장은 첫째로 위험한 자극이라든지 정서를 유발 시키는 자극을 지각하면 그 것이 시상하부로 가서 바로 정서적 느낌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든지 신체적 변화로 가든지 두 경로로 거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임스-랑게]의 이론과 [캐논-바드] 이론의 차이를 다음의 그림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7-2강 file no.15



07-E-15

7-2강 file no.15. [제임스-랑게] 정서이론과 [캐논-바드] 정서이론의 비교 그림



- < 세부주제 이론3: 기억 >
- 일차적 기억 - 자극이 강하여서 기억에 한동안 남아 있는 것
- 2차적 기억 - 일차적 기억이 지속되면 이차적 기억으로 넘어감: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경험 지식 => 단기기억, 장기기억
- - 단순한 반복학습이 아닌 조직화 노력이 기억 결정
- -주의의 역할 강조 / 기억의 분류 체계는 인지심리학의 기초 이론으로 역할을 함

07-E-15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3: 기억 ]



다음 세 번째 주제는 [기억]에 대한 이론인데, 기억에 대하여 제임스는 1차적 기억 (Primary Memory)과 2차적 기억(Secondary Memory)을 구분하였습니다. 1차적 기억은 자극이 강해서 한동안 남아있는 기억을 (오늘날 용어로는 '단기기억'입니다.), 2차적 기억은 1차적 기억이 계속되면 2차적 기억으로 넘어가며,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지칭합니다. 오늘 날 '장기기억'의 개념입니다. 오늘날에 사용하는 단기기억과 작업기억의 개념은, 현대 인지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을 출발시키면서 윌리엄 제임스의 1차적 기억과 2차적 기억의 개념에서 그의 기억이론의 개념을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또한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닌 조직화 노력이 기억을 결정한다든지, 주의의 역할 등을 강조했는데, 이런 틀이 이후 1960년대부터 생긴 인지심리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2장 file no.17



● <세부주제 이론4: 습관>

- 유기체는 습관의 덩어리
- 적응 과정은 생물체에게 습관, 즉 신경생리적 과정을 형성
- 습관의 기능적 가치
  - 결과 성취 반응을 단순화
  - 주의집중 감소
  - 유용한 사회적 가치

07-2-17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4: 습관(habits)]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습관]을 윌리엄 제임스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습관의 덩어리이고, 적응 과정은 생물체에게 습관, 즉, 신경 생리적 과정을 형성시킨다고 보았으며 다시 말하면 의식까지도 그 모든 것이 습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적응 과정이 생물체에게 습관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생리적 과정으로 형성시킨다 라는 주장을 전개한 것입니다. 습관의 기능적 가치 등을 언급했는데, 습관이 살아가는데 적응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까닭은 습관이 결과 성취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주의 집중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가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5: 자아(Self)]

7-2장 file no.18



- <세부주제 이론5: self >
  - Self는 단일 실체가 아니다
    - 신체적 자기
    - 사회적 자기
    - 심리적 자기
  - 대상으로서의 self와 주체로서의 self 구분

07-6-18

윌리엄 제임스가 전개한 다섯 번째 심리학 주제는 자아(Self)에 대한 개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제시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단일적인 실체가 아니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자아는 신체적인 Self, 사회적인 Self, 심리적인 Self, 그 다음에 대상으로서의 Self, 주체로서의 Self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Self라는 것을 하나의 통일된 단일체로서 생각해오던 이전의 철학적, 심리학적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 [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 : 주제6: 종교적 체험 ]

여섯 번째로 윌리엄 제임스가 이론적으로 거론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트 (<http://etext.lib.virginia.edu/toc/modeng/public/JamVari.html>)를 보시면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 이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책 내용의 영문이 그대로 실려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 책에서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정서 체험의 여러 측면을 논의하고, 신비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인간 적응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종교적 체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접근이면서도 체계적인, 전체 종교적인 경험 모두를 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여러 측면을 연합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7-2장 file no.19

7-2장 file no.20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한국의 ‘한길사’에서 위의 책을 2000년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제임스에 의하면 종교적이고 내적인 경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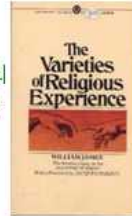
● <세부주제 이론6: 종교적 신념>

- <http://www.csp.org/experience/james-varieties/james-varieties.html>
- 책 전체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 - 종교적 신념, 정서 체험의 여러 측면 논의
- - 신비성 및 인간 적응을 위한 필요성 인정

● <연합>: 신경연합 법칙: + 유사성, 접촉성



07-2-19



●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 - 한길그레이트북스 윌리엄 제임스 (지은이), 김재영 (옮긴이) | 한길사
- 출간일 : 2000-03-20 | ISBN(13) : 9788935652297

07-2-24

양심의 갈등, 죄의식, 구원받았다는 확신, 소망, 기쁨, 감사, 겸손, 자비, 공감 등등의 감정과 행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감정 행위의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는 분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슬라이드 22-26)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시간이 날 때 다음의 책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책 소개

<http://book.nate.com/detail.html?sbid=667898&mode=search>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이론

-4. 종교적 경험의 목적

<http://blog.naver.com/civil58/60165284601>

역자 김재영 교수의 글

- [종교경험의 다양성에 나타난]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이론

<http://mybox.happycampus.com/kstudy/1262182>

종교경험의 다양성

## 5. W. James: 종합



- 심리학을 자연과학으로 설정:
  - 철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생물학의 한 분야로
- 유럽의 합리론이나 분트의 전통을 따라서
  - 의식을 심리학의 중심 주제로 설정하였고 내성법을 인정하였으나
  - 다윈의 진화론적 입장을 도입하여
  - 의식의 생리적 기초, 기능, 행동적 측면의 강조로
  - 분트나 Titchener의 구성주의를 넘어서서, 즉 철학적 심리주의를 넘어서서
  - 기능주의, 행동주의, 생물심리학적 바탕이 미국 심리학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함

07-6-28

7-2장 file no.27

## 5. 윌리엄 제임스: 종합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종합을 논하며 종합적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무엇을 이루어 냈는가를 살펴보면,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을 자연과학으로 설정했습니다. 철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생물학의 한 분야로써 유럽의 합리론이나 분트의 전통을 따라서 의식을 심리학의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내성법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적 입장을 도입해서 의식의 생리적 기초, 기능, 행동적 측면의 강조로서 분트나 티치너의 구성주의를 넘어서서 즉, 철학적 심리주의를 넘어서서 기능주의, 행동주의, 생물 심리학적 바탕이 미국 심리학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2장 file no.28

그러면 무엇을 강조했느냐, 마음의 정적인 내용, 의식의 분석, 정적으로 고정돼있는 요소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으로써 활동으로써 계속되는 흐름으로써의 마음, 의식, 그러니까 마음, 의식이라는 것을 과정, 흐름, 작용, 기능 이런 측면으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적응



- - 마음의 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으로서, 활동으로서, 계속되는 흐름으로서의 마음, 의식 강조
- - 마음의 적응적 측면, 기능적 측면, 실용적 측면 강조
- - 심리학의 응용분야로의 접근 열어놓음
- - 심리학의 제반 현상에 대한 기초 이론과 분석 전개 하여 이후의 미국의 심리학 연구자들이 연구하여야 할 주제, 기초 개념, 이론 등을 제시함
- - 행동주의 심리학의 출발점을 열어줌,
- - 형태주의 심리학의 입장도 선구

07-2-28

적 측면, 즉 기능적 측면, 실용적 측면을 강조했고, 심리학의 응용분야로의 접근을 열어놓았습니다. 실험적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다음에 심리학의 제반 현상에 대한 기초 이론과 분석을 전개해서 이 후 미국의 심리학 연구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 기초 개념, 이론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의 출발점을 열어주고 형태주의 심리학의 입장도 미리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윌리엄 제임스의 얘기를 끝냈고 그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서 출발한 [기능주의 심리학]이 무엇이었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2장 file no.30



## 6. 기능주의 심리학

- 6. 기능주의 심리학
  - 진화론 입장의 확산과
  - 이에 미국의 실용주의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움직임이
  - 미국의 구조주의 심리학 전통을 비판하고 심리학적 접근을 재구성하게 함.
  - -첫 미국심리학과,
  - -행동주의의 선구
  - -그러나 체계적 학파가 아니라 잘 짜여지지 않은 넓은 의미의 관점
  - 기능주의에는 중심대표인물이 없음

07-2-30

### 6. 기능주의 심리학

기능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능주의 심리학은 진화론 입장의 점진적 확산으로 진화론 입장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퍼지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미국에 팽배했던 실용주의적 입장이 결합해서 이뤄낸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 티치너가 시작한 독일식 구

성(구조)주의 전통을 비판하고 미국식 심리학을 재구성 하는데서 형성된 심리학파입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미국 심리학파라고 할 수 있겠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잘 짜여진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관점이었고, 기능주의는 중심 대표 인물이 없었습니다.

7-2장 file no.35

## 기능주의 심리학



- Peirce
- ← 철학자
- Angel
- Dewey
- Carr

07-2-34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능주의 심리학의 여러 학자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주의 심리학자가 아니라 기능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준 Peirce 라는 철학자의 사진이고, 그 다음은 시카고에서 기능주의 심리학의 틀을 갖추어서 발전시킨 Angel의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철학자이고 교육학자이기도 했고 심리학 이론도 내놓았던 Dewey의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Angel의 제자로써 기능주의를 발전시켰던 Carr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영향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철학자들은 철학이 기능주의 심리학에 끼친 영향을 언급하였는데, C. S. Peirce라는 철학자가 Pragmatism, 즉 실용주의적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윌리엄 제임스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Peirce의 기본 생각에 의하면 진리나 확실한 지식은 실용성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 또는 진실이 독립적으로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퍼스는 다윈과 자연선택 내용을 받아들였고, 사고의 기능이란 행위 습관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것은 유럽에서 나온 생각이며, 앞에서 윌리엄 제임스에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식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Action의 규칙이고 Habit의, 습관의 규칙이다 라고 철학자 퍼스는 보았습니다.

7-2장 file no.31

7-2장 file no.32

## <6.2.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철학의 영향>



- <철학자 C. S. Peirce >:
  - W. James가 존경하는 동료 철학자
  - Peirce의 pragmatism의 개념을 James와 Dewey가 선전/확산
- Peirce의 기본 생각들:
  - - 진리, 지식이 독립적으로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적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의하여 주어진다.
  - 실용성에 의하여 가능하여진다.
  - - 다윈에 의하면 생명체, 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자연선택에 의하여 우주 종이 살아남았으며,
  - 지식, 신념도 자연선택 과정에 의하여 선택, 수용될 수 있거나 약화된다.
  - -사고의 가능이란 행위 습관을 산출하는 것이며,
  - 우리가 지식,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rule of action, habit이다.

07-2-31



- - 그런데 습관이란 실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 따라서 사고, 아이디어, 신념이란 실용성에 의하여 구별되며 그 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 - 최선의 지식, 신념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 - 한 개념이란 그것을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변환시킬 수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 -> 조작적 정의 → 행동심리학에 영향 줌
- - Psychology: the science of mental function, not content.
- - The functional approach, at once, cast a blinding light upon dark areas of psychology long held by dogmatism, misconception and neglect, and breathed a new life into the dry bones of psychology.

07-2-32

그런데 이 습관이란 실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부연 설명 되는데, 한 개념이란 그것을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표현 시킬 수 없다면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한 선언적 얘기이죠.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개념을 얘기하지 말자’ 라는 것이고 이런 식의 주장은 심리학으로 넘어와서 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은 관찰 가능한 개념이어야 하고 조작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런 개념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변화돼서 [행동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은 ‘Science of mental function’, 즉 ‘심적 기능’의 과학이고 ‘심적 내용’의 과학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분트-티치너로 이어지는 심리학은 다분히 심적 내용을 밝히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unctional approach, 기능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듀이]



- <John Dewey (1859- 1952)>
  - Peirce, Hall, Morris 등에 영향 받음; Johns Hopkins 학생
  - W. James의 영향을 받아, Dewey는 의식의 실용적 관점, 즉 도구주의를 제시함.
  - James, 분트의 영향을 종합하며 심리학에 새로운 접근 시도
  - 철학, 심리학, 윤리학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형성하려함
  - -1896: The reflect concept in psychology 논문:
    - 기능주의심리학의 출발점
  - - 전통적인 연합주의의 개념 비판:
  - 1896- 심리학교과서:
    - 경험주의 심리학 + 관념론 철학 전통
  - -듀이의 기능주의는 사회적 행동주의 경향:
    - 사회학자 G.H.Mead가 제자 ->사회심리학 출발
  - -워카고 대학 철학과 과장을 하면서 J.R. Angell -> 심리학과장
    - - 심리학과 학습실험실 설치
  - -듀이: Learning by Doing

07-2-33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존 듀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존 듀이는 윌리엄 제임스, 분트의 영향을 종합해서 심리학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존 듀이 - [(John Dewey, 1859-1952; [http://en.wikipedia.org/wiki/John\\_Dewey](http://en.wikipedia.org/wiki/John_Dewey) (영문), [http://ko.wikipedia.org/wiki/%EC%A1%B4\\_%EB%93%80%EC%9D%B4](http://ko.wikipedia.org/wiki/%EC%A1%B4_%EB%93%80%EC%9D%B4) (한글); 철학의 재구성을 읽고 : [http://v.daum.net/link/22974049?CT=MY\\_SUB](http://v.daum.net/link/22974049?CT=MY_SUB) (한글)] - 는 철학과 심리학과 윤리학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대 철학과 과장을 하면서 제자 J. R. Angel이 심리학과 과장이 되고 심리학과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Reflect Concept’, 즉 반사궁 또는 반사호 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는데, 사회적 행동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7-2장 file no.34



- **반사호 Reflex Arc** : 자극-중양연결-운동반응:
  - [자극-> Idea(감각) -> 반응] 의 개념은 인위적으로 전체를 쪼개놓는 것이다.
  - 그러나 3개가 분리된 개별 단위가 아니라 전체가 연결된 것임
  - 이 셋은 목걸이의 구슬과 같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의 문답을 하는 것일 뿐이다.
    - => 형태주의 심리학의 메사
  - 감각이란 자극인상의 수동적 등록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행동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한 행동이다.

07-2-34

생리학에서 벨 마젠디 같은 학자는 [물리적 자극이 주어지고 거기에 신체가 무엇을 연결해서 운동반응으로 나온다] 라는 [자극-중양연결-운동반응] 식으로 생각을 제시했는데, 듀



이는 이런 식의 개념은 전체를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존 듀이의 반사호 개념에서는 이 세 개가 분리된 개별 단위가 아니라 전체가 연결된 것이고 이 셋은 목걸이의 구슬처럼 서로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의 분담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제시되고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자극 따로, 중간에 중계하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요소주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상을 왜곡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개가 모인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듀이는 그의 반사호(반사궁) 개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7-2강 file no.35



- - 감각과 의식이 없이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행동이 현실에 새롭게 통합되어야 할 때에만 감각, 정서,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즉 적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 산보를 나간 사람은 나뭇가지 소리를 거의 의식 못한 채 특별한 감각이나 정서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산보를 하겠지만, 병사의 경우에는 급히 현재의 행동을 조정, 통합하여야 하며 급격히 정서가 유발될 것이다.
  - 나무가지가 꺾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을 때, 적군과 대치한 병사와, 뒷산에 산보를 하는 사람의 경우 그들의 현재의 행동에 의하여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다른 의식 내용이 되는 것이다.
- 이때에 일어나는 정서란 행동 경향성에서 feedback을 받아서 이루어진다. 정서란 갈등적 행동 경향성(병사의 경우 도주와 싸움의 갈등)인 것이다. 그러한 경향성이 없다면 정서를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07-6-35

그 다음에 듀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감각과 의식 없이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학의 주제가 의식 경험의 분석이라고 하면, 감각, 의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심리학의 주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맥락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산보를 나간 사람은 나뭇가지 수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특별한 감각이나 정서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산보를 하겠지만,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소리가 나면, 산보 간 사람은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가겠지만,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병사의 경우에는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소리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르고 그에 대한 맥락적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극, 즉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소리는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산보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병사의 경우는 도주하거나 싸움하려고 하는 행동경향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듀이에 의하면 행동을 요소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맥락을 고려한 통합된 전체단위로 보아야 된다는 입장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7-2강 file no.36

## 쉬어가는 학습

- - 이러한 '의식의 운동이론', 반사호 이론은 자유의지를 지닌 자아라는 개념을 배제한 것이다.
- 초월적인 자아의 지각과 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 조정통합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듣고, 주의하고, 반응하는 행동의 연쇄로, 생존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진행되는 행동의 흐름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 인간의 self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 (Hume처럼 self를 제거하고, Muensterberg처럼 의지를 제거한 바탕에서), 감각이란 현재의 행동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의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07-2-35

듀이의 이러한 '의식의 운동이론', 즉 반사호 이론은 경험하는 사람의 자아와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배제한 이론입니다.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인 자아라는 것에 의해서 지각되고 결정되는 것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 통합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듣고, 주의하고, 반응하는 행동의 연쇄로, 생존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진행되는 행동의 흐름으로 이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듀이에 의하면 인간의 self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감각이란 (Hume처럼 self를 제거하고, Muensterberg처럼 의지를 제거한 바탕에서) 현재의 행동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의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7-2강 file no.37



- **Progressivism과 심리학: Dewey**
  - - reform, efficiency, progress 사조
  - - 새로 부각되는 과학과, 심리학 직업과 현대성을 연결하였음 -
    - 교육에서
      -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에 초점 둠: 학교는 community이고 여기에서 아동들을 개혁하며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함
    - - 학교가 심리학이 사회적 실천을 하는 좋은 장소
    -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적응의 도구이며, 이는 학교 경험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음
    - 심리학이 실용적 경험을 받기 위하여서는 학교 장면이 개입되어 실천하여야 함
    - 학교에서 심리학자들이 사회구조에 개입하고, 사회적 발전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교육시켜야 함. 심리적 적응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데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여야 함.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

07-2-37

그 다음 Progressivism과 심리학과 관련성에 대하여 듀이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듀이는 다윈의 입장을 연계해서 사회의 개혁, 효율성, 진보 그런 사조를 강조했습니다. 새로 부각된 과학과 심리학 직업과 현대성을 연결을 해서 학교에 심리학이 들어가서 심리학의 학문적 내용을 학교에서 구현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이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 - Psychology is a social analogue to consciousness (monitoring 주체)
- - 사회구조에의 심리학의 적용: 새 사회에서는 심리학이 인간 노력이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자신을 갖고 전개하도록 함.
- - 진보 관점의 사회의 목표는 지원적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계발하는 것
- - 새로운 죄: 인간사회 개선의 원리에 협조하기 거부하는 것
- - 개인은 사회로부터 자신의 성격, 사고를 획득
- - 의도적 계획에 의하여 사회발전, 개인발전을 도모해야 함
  - -> 사회적 통제: 사회적 통제란 행동의 통제임
- - 이를 위해 내성법이 아닌 행동의 관찰과 실용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07-E-38

심리학은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 구조에서 심리학이 적용되어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계획에 의해서 사회, 개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 발전에, 교육에, 학교에, 심리학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심리학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실용적인 그런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감각요소를 분석하는 내성법 식의(티치너식의) 그런 심리학만으로 안 되고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바꾸는 그런 실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듀이는 심리학으로 하여금 실용적 측면, 활동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 눈을 돌리게끔 해주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6.3.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와 심리학>

- 진화론적 논의
- 미국심리학회 창립: 1892
- 미국사회는 세계1차대전이 끝나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민으로 세계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변화와 실용적 의의 추구의 사조가 생김
- 구 심리학과, 신 심리학: 스코티쉬 학파 전통의 종교와 철학이 가미된 심리학에서 → 실험주의, 심리측정, 자연주의, 실용주의에 기초한 신-심리학이 형성되기 시작함.
- 일상생활, 교육, 의료, 예술, 경제 등에서 실용적 응용의 사조가 팽배하게 됨
- 이러한 사조에 맞추어, 실험적이고, 과학적이고, 생물학 기반의, professional 심리학이 떠오름

07-E-39

7-2장 file no.39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와 심리학의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앞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19세기 후반에 미국 사회에서는 진화론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미국 심리학회도 1892년에 창설이 되고 세계 1차대전이 끝나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민으로 세계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 자체가 변화되고 변화되다 보니까 가장 효율성 있는, 실용성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는 사조가 형성됐죠. 그래서 구 심리학 대신 심리학의 대립이 생기면서 신 심리학이 세를 얻게 되는데 스코티쉬 학파 전통의 종교와 철학이 가미된 연합주의적 심리학으로부터 실험주의적, 실험측정적 자연주의적 실험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심리학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교육, 의료, 경제 등에서 실용적 사조가 팽배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조에 맞춰서 심리학도 실험적이고 과학적이고 생리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직업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심리학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프래그마티즘: Peirce + William James + J. Dewey
- - W. James, S. Hall 등은 각자의 학문적 관심이 너무 다양하기에 기능주의의 틀 하나 머물러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음
- 기능주의와 Titchener의 구조주의와 비교:
  - 구조주의: 의식의 내용 요소: What
  - 기능주의: 의식의 작동원인과 과정: Why & How
- -> 절차 의식/ 의식의 내용 보다는
- → 행동/ 행동과정 으로 초점이 옮겨감

07-2-40

여기서 Pragmatism 철학, Peirce 라든지 윌리엄 제임스, 듀이 등의 실용주의 철학이 연결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비교한다면, 본트의 입장은 의식의 내용 요소, 즉 'What' 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서 기능주의는 의식의 작동 원인과 과정, 즉 'Why' 와 'How'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주의 심리학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살펴본다면,

7-2강 file no.41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뮌스터버그(H. Münsterberg) 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기능주의심리학에서 행동주의심리학이 생기는 그 중간에서 행동이 강조되는 측면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뮌스터버그라는 사람은 산업 심리학 출발에 상당히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 의지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은 모두 행동하려는 우리의 자신의 경향성을 지각하는 것 뿐 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지, 생각, 의식 이런 것을 거론하기보다 행동을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의식의 운동이론: H. Muensterberg>
- - 의지(意志)의 심리적 근거에 대한 엄밀한 분석 시도:
  - purposive Psychology
  - - 의지란 데카르트 전통에서, 미망(妄想)하는 것과 같은 추상적 심리적 능력이 아니다, 그런 식의 생각은 착각이다.
- - 우리의 생각이란 행동을 하려는 준비성의 산물이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지식, 생각을 형성한다.
  -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의지를 느끼는 것은 의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 행동하려는 우리 자신의 경향성을 자각하는 것일 뿐이다, 내가 의지에서 일어서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어서는 근육 운동과정이 선행하였고, 그것이 의식에 여호(여유)를 것뿐이다.
  - 의식이란 부수현상일 뿐이다.
  - 행동을 일으키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07-2-41

7-2장 file no.42



- 의식의 내용이란 자극에 의해서, 외적 행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연결시키는 생리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근육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 인간의 행위란 환경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 따라서 실용, 응용심리학이란 행동적이어야 한다. 의식이란 실상 하는 일이 없다. 그저 옛 심리학적 믿음에 따라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일 뿐이다.
- 의식이란 심리학에서 irrelevant 한 것이다.
  - → 분트, Titchener 의 독일식 심리학의 부정

07-2-42

그에 의하면 의식의 내용이란 자극에 의해서, 외적 행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연결시키는 생리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근육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란 그 자체의 추상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라는 것이 신경 생리적인 과정, 근육과 생리적인 과정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의식의 특성이 결정되며,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란 환경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용적 심리학, 응용적 심리학이란 것은 티치너처럼 의식 분석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란 실상 하는 일이 없고 심리학적 믿음에 따라 의식이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어서, 의식이란 심리학에서 irrelevant하다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 분트와 티치너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7-2장 file no.43



- < W. McDougall >
  - 다윈주의자, 행동주의와는 상충
  - - 목적 심리학; hormic psychology
  - - 의식, 지식 없이도 심리적 상태가 행동 자극하는 목적, 목표를 지님
  - -동물행동학적 관점
- 목적 심리학, 기능 심리학 등 관련 자료는 :
  - 로버트 S. 우드워드 지음, 이진숙 (역), 현대심리학, 문교부, 1962, 를 참고
  - 원저는 : Robert S. Woodworth (1948), Contemporary Schools of Psychology,

07-E-44

맥두걸(McDougall)이라는 사람이 목적 심리학이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의식이나 지식 없이도 심리적 상태가 행동, 자극하는 목적, 목표를 지닌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행동이 강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7-2강 file no.44



#### <6.4. 기능주의 심리학의 발현>

- < 1900년대 초의 기능심리학의 득세 >
  - : 철학에서 생물학으로, 1896-1910
- [기능심리학]:- 의식 보다는 행동
  - 의식에는 세상과 근육운동으로부터의 감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식이 행동 산출에 (인과적) 역할을 못한다.
  - 의식의 내성은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이미 지나간 것 (what was)에 대한 내성일 수밖에 없다.
  - 그것보다는 what is to be를 다루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적응적 행동 그 자체를 다루어야 한다.
  - 의식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와 관련하여서만 의미가 있다.
- - 1905년 경에 구조주의심리학보다는 기능주의가 광범위하게 수용됨

07-E-44

기능주의 심리학의 발현을 논하자면, 이상의 설명에서 기능주의 심리학이 배태되는 데에 공헌한 이런 저런 사람들의 배경이 있었고 행동을 강조한다든지 의식을 끌어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능주의 심리학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느냐 하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기능 심리학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생물학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 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의식이 행동 산출에 인과적인 역할을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에 대해서 내성해봤자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내성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어나는 어떤 것 [what is to be]를 다루어야 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적응적 행동, 그 자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식]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만 관련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 기능주의 입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7-2장 file no.45



- **James, R. Angell (1869-1949):**
- -취카고 대학을 기능주의의 핵심으로 만들음
- -Dewey의 심리학 책에 자극받음 / -철학 전공
- -James 제자, 독일 -> 취카고 - 듀이와 합류하여 실용주의 -> 기능주의
- - Titchener-Baldwin 반응시간 논쟁에 대하여 이는 어느 편이 맞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논하여 유명하여짐
- -규준적 보다는 개인차적 특성 중요 강조함
- -기능주의심리학은
  - 가. 심적 작용을 연구, (What보다는 Why, How를 연구하여야)
  - 나. 마음, 의식은 환경과 이에 대한 반응 사이의 중개 역할,
  - 다. 마음과 신체의 상호작용 중요

07-2-45

기능주의 입장에 서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학자가 제임스 앤젤이라는 시카고대학의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듀이의 책에 자극을 받아서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기능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기능주의 심리학은 심적 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의식의 내용인 무엇보다는 왜, 어떻게를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 마음과 의식은 환경과 이에 대한 반응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음과 신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라고 보았습니다.

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가 1906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서 강연을 하면서, 기능주의 심리학의 영역에 ('The province of functional psychology')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생물학에서는 생물적인 구조가 생물적인 생리적인 기능을 산출하는데 심리학에서도 기능이 구조를 산출한다. 실제로 구조주의에서는 의식이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 그러니까 구조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 구성(구조)주의 심리학은 철학적 심리학에서 생물적 심리학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간의 일시적인 역사적 잘못이었고, 그러니까 철학적 심리학에서 생물적 심리학으로 옮겨가려면 철학적 심리학에서 그다음에 기능적 심리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구성(구조)주의 심리학이 꺾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서 긴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일시적인 잘못이었다는 거죠. 이제 기능을 강조하고 작용을 강조하고 과정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심리학은 역사적으로 봐서 아리스토텔레스, 스펜서, 다윈, 실용주의 심리학의 참 상속자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앤젤의 제자 중 한사람이었던 왓슨이 나중에 행동주의 심리학을 시작 합니다.

7-2장 file no.46

7-2장 file no.47

한편 컬럼비아 대학의 Harvey Carr라는 학자는 심리학은 심적 내용, 의식 내용이 아닌



- 1906, APA 회장 강연
  - The province of functional psychology
  - -생물학에서는 구조가 기능을 산출시키는데, 심리학에서는 기능이 구조를 산출한다. 실제로 구조주의에서의 의식이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 - 구조주의 심리학은 철학적 심리학에서 생물적 심리학으로 옮겨가기 위한 중간의 일시적 역사적 잘못이었고,
  - 기능주의 심리학이 역사적으로 Aristotle, Spencer, Darwin, 실용주의의 심리학의 참 상속자다
- 제자: → 행동주의심리학 창시자 J. B. Watson

07-2-47



- **Harvey Carr (1873-1954):** 컬럼비아 대학
  - - 심리학: 심적 과정에 대한 과학
  - - 적응활동, 운동 반응, 동기의 중요성
  - - 내성법, 객관적 측정 모두 인정;
    - 그러나 객관적 측정 강조 -> 행동주의심리학에 영향줌
  - - 심적 과정은 적응적 목적 지님,
  - - 심적 활동은 환경자극에 의해 일어남,
  - - 동기의 중요성,
  - - 행동반응들은 과거와 현재의 조건들의 결과임
    - (근접자극조건, 원격자극조건-> 결과조건)
  - 적응행위는 행동의 기초 단위
    - 동기 → 동기화 자극 → 감각상황 → 반응 → incentive → 연합
    - 행동주의심리학의 자극-반응-강화 및 연합주의에 영향 줌
- 제자: Thorndike, Woodworth

07-2-48

심적 과정에 대한 과학이고, 적응 활동이라든지 운동 반응 동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객관적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의식의 요소는 객관적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관적 내성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행동주의를 강조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Carr는 심적 과정은 적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심적 활동은 환경자극에 의해 일어나고 동기의 중요성, 행동 반응 등 과거와 현재 조건들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기계론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마음의 내용인 의식의 요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요소들이 기계론적으로 연합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오는 조건들의 기계적 관계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 행위인 동기가 있고, 동기화 자극이 있고 감각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거기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 인센티브와 자극과 연합이 되는, 그러니까 자극-반응-강화 거기에 동기가 따르는 그러한 개념을 Carr가 제시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쏘다이크(Thorndike), 우드워스(Woodworth) 등을 통해서 행동주의심리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7-2장 file no.48





- R. S. Woodworth:
  - 자극-유기체-반응 (S-O-R) 개념 강조
  - -유기체와 motivation 강조
  - -mechanism (how)와 drive (why)를 강조
  - Dynamic Psychology (1918), he mobilized the term 'dynamic' to refer to the use of behavioral, physiological, or introspective methods depending on which method best fits the situation of empirical interest.
  - Titchener, Watson, William McDougall의 협소한 방법론에 대한 비판
  - - 독립변인 종속변인
  - -용어정리
  - -실험심리학책 저술 → 이후 수십년간 영향줌
- Mary Calkins: 1906:
  - self-psychology라는 개념을 폐기하며
  -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중간 개념으로 타협화 시도

07-2-49

후에 행동주의 심리학 설명할 때 중요한 수정 개념으로 제시되는 것이 [자극-유기체 반응]입니다. 우드워스는 [자극-반응]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유기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유기체의 동기화, 목적, 추동 이런 것을 역동적 심리학이라는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우드워스는 실험심리학사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Mary Calkins라는 여성심리학자는 자아심리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구성(구조)주의와 기능주의의 중간 개념으로 타협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7-2장 file no.49

#### <6.5. 미국심리학이 드디어 '의식'을 버림>



#### << 1904-1912): 의식논쟁: 마음 개념의 재고 >>

- 1904: James:
  - 의식이 존재하는가? 논문
  - - 의식이란 데카르트 전통의 잔재
  - - 의식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 존재하지 않는 것(nonentity)에 대한 이름이다. 심리학에서 일차적 원리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없다.
    - 의식 개념에 매달리는 사람은 점차 사라져가는 개념인 '영혼'이 철학이라는 공기(분위기)에 낚인, 희미한 햇소문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echo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 이제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의식이라는 개념을 버릴 시기가 된 것 같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바는 기능이고, 그 기능은 알의 과정이다. 의식이란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07-2-50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 심리학이 드디어 [의식] 개념을 버리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1904년 제임스는 '의식이 존재하는가?' 라는 논문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 분트가 실험 과학으로써 심리학을 출발시키기 이전에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이나 연합주의자들, 유럽의 특히 독일의 관념론자들은 Idea 들의, 관념의 연합을 강조하고 마음의 요소를 분석해내고 그것을 다시 결합하고 분석하는 요소분석, 내용분석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드디어 미국 심리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의식이라는 개념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전개하고 의식 개념을 심리학에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에 의하면, 의식이란 데카르트 개념의 잔재이고 심리학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의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의식 개념에 매달리는 사람은 점차 사라져가는 개념인 영혼이, 철학이라는 분위기에 남긴 희미한 헛소문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에코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의식이라는 개념을 버릴 때가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의식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바는 기능이고 그 기능은 앎의 과정이며, 의식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강하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과학으로써 독립하면서 심리학에서 버린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플라톤 이래 옛날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강조되었던 개념인, 영혼(Soul)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Mind’라는 개념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남아있었던 개념이 의식이라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은 별개 아니다. 의식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단지 과정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그걸 요소로 분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의식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2장 file no.50



● <신실재론 철학자 >>

- -인식론에서 인간의 앎, 아이디어가 자연의 대상에 대한 표상으로서, 복사물로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 전통의 인식론은 이 원론적 존재론에 근거한 것이다.
- 물리적 세계가 저 밖에 존재하고, 그에 대한 의식이 내 마음에 표상으로서 존재한다는 생각. 이 생각이 신실재론에 의해 반박됨
- - 신실재론:
  - 의식이나 내적 표상의 매개 없이도 우리는 대상을 바로 알 수 있다.
  - 의식은 따로 존재하는 내적 세계가 아니라
  - 자아와 세상과의 상호작용 관계일 뿐이다. 앎의 관계일 뿐이다. R. B. Perry, E. B. Holt, E. Singer.

07-2-5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신실재론 철학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여유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도록 하고 짤막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보는 것처럼 의식은 따로 존재하는 내적세계가 아니며, 자아와 세상과의 상호작용 관계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전개됩니다.

7-2장 file no.51



● <철학자 Perry>

- - 마음, 의식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중적인 것이다. 우리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동물의 심적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의식, 마음도 타인에게 열려있다.
- - 따라서 내성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 행동을 관찰하여 알 수 있다.
- - Mind and behavior are, functional, the same.
- -인간심리학, 동물심리학이 행동이라는 동일한 기반에 기초함

07-2-55

또한 철학자 Perry가 의식은 [내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이며 같은 것이다('Mind and Behavior are Functional the same').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 의식의 요소를 분석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능을 분석하고 행동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철학자 Holt>

- -의식이란 한 개인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are out there wherever the things specifically responded to are'
- -의식은 손전등 같은 것: 대상자극에 대한 특정반응일 뿐; 그러한 반응에 손전등을 비추면 누구나 나의 의식경험을 알 수 있음.
- 의식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하여야.
- 그런데 행동은 대상 자극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내성이 아니라,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상황 조건을 관찰해야함.
- 고로 의식의 연구는 행동의 연구임.

07-2-55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철학자 Holt에 의하면 [의식이 아니라 행동을 관찰해야한다. 내성이 아니라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상황조건을 관찰해야하고 의식의 연구라고 쪽 연구해왔던 것은 행동의 연구이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7-2장 file no.52

철학자 Singer는 마음이란 추상화의 오류이며 의식이랑 행동에서 추론된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이다. 마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맨 밑줄 영문으로 적혀진 것을 보면 'Psychology should abandon mind,' 심리학은 마음이란



● <철학자 Singer>

- - 마음이란 추상화의 오류이며, category mistake 일
- - 의식이란 행동에서 추론된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일
- - 의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의식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생각하게 되는, 가능성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일 뿐
- - There is no mind for anyone to investigate.
- - Mentalistic psychology was a delusion from the start.
- - Psychology should abandon mind, then, and study what is real: behavior.

07-2-54

개념을 버리고 ‘and study what is real’, 실제로 존재하는 행동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2장 file no.53



● <Dewey의 도구주의 >

- -마음은 세상에 대한 복사나 관람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 도구
- -마음은 생물적 유기체의 기능: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
- 동물은 마음이 없음, 왜냐하면 마음은 사회적 본질이 있는데, 동물은 이것이 불가. 동물은 사고 불가.
-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여야 언어 습득하고, 그를 기반으로 사고가 가능
- -마음은 세상에 대한 표상인데, 유기체로 하여금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인도하는 도구적 기능임.
- 심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고, 그것은 외부 대상과 행동을 지칭한다는 것임.

07-2-55

그 다음 듀이의 도구주의에서도 [마음은 세상에 대한 표상인데, 유기체로 하여금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인도하는 도구적 기능이고 심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 줄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외부 대상과 행동이 연결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7-2장 file no.55

다음에 [의식을 버리기 1910-1912년]에서 보면 데카르트 전통의 합리론, 관념론이 물러나고 실험주의 철학이 미국에서 대두되면서 의식 개념이 점차, 운동반응의 개념, 관계의 개념, 기능의 개념, 행동의 개념으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심리학의 중요한 세



● <<‘의식’을 버리기: 1910-1912>>

- - 데카르트 전통의 합리론, 관념론이 물러가고, 실용주의 철학 대두
- - “의식” 개념 -> 운동반응 -> 관계 -> 기능 -> 행동
- - 동물심리학자: 마음의 개념이 골치덩이, 불필요
- - 당시: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자존감 하락:
  - <- 철학에서 떨어져 나오고, 통일된 원리도 없고,
  - <- 마음, 의식 개념도 버려지고, <- 물리학처럼 과학적이지도 않고,
  - <- 제대로 과학적 훈련도 안 이루어지고 ...
- **교로:**
  - -> 철학, 내성 중심의 심리학에서 생물학, 객관적 관찰 실험 중심으로 변화 요청됨
  - -> 영혼이라는 개념을 버렸으나,
  - -> 이제는 마음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할 때라는 공감대 형성됨

07-2-466

력이었던 동물심리학자들은 ‘마음’ 개념이 골치덩이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심리학이 철학에서 떨어져 나와서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자존감이 하락되어 있었는데 (심리학 자체로 통일된 원리도 없고 마음-의식 개념도 비판을 받아서 버려지고, 물리학처럼 과학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과학적 훈련도 안 이루어지고 과학적, 실험적 연구도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자존감이 하락됐는데), 그래서 철학의 한 분과로써 철학의 후예로써 내성 중심의(티치너의 심리학) 심리학을 해오던 전통에서부터 자연과학적인, 생물학에 바탕 한 객관적 관찰 실험 중심으로 변화 요청되는 그런 시대사조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이 과학으로 독립하면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버렸지만, 이제는 과학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마음이라는 개념을 버려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 <-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하나?

- -> 대안 1: 마음 개념을 생리적 조건반사 개념으로 환원시키기:
  - Pavlov적 접근
- -> 대안 2: 심리적 개념을 행동 개념으로 대체하기:
  - Watson의 행동주의심리학
- -> 1910년대 미국:
  - 내성법 적용과 의식 연구보다는 행동연구가 팽배해짐.
  - 자극-반응의 관계성에서의 행동 연구가 심리학 연구의 많은 부분 차지하게 됨
- → 행동주의 의 심리학이 일어남 → 다음 주에

07-2-467

그러면 마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대안의 하나는 마음 개념을 생리적 조건 반사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유명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적 접근, 조건 반응입니다.

다른 대안은 심리적 개념을 행동 개념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이 20세기 초에 (J. B. Watson)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10년대에서 미국은 내성법 적용과 의식 연구

보다는 행동 연구가 팽배해져서 자극 반응에 관계성에서의 행동 연구가 심리학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음 주에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내용으로써의 의식의 내용, 의식의 요소 이런 것들을 내성적으로 연구하는 접근을 버리고 마음이라는 개념을 행동으로 바꾸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중심의 확실한 과학으로 세우자는 것이 다음 주에 설명할 행동주의 심리학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기능주의의 특성의 대표적인 내용을 표에 요약해놓았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6. 기능주의의 특성 요약 표>



- **Descartes/Wundt의 전통적 심리학**     **기능주의심리학**
- 심리학의 주제: 의식된 내용     -의식의 내용이란 빠르게 사라지는 것
- -지속되는 것은 기능, 선택적 기능
- -고로 심리학의 주제:
- 기능, 과정, 심적operations
- - 자극과 반응 사이의 상관의
- 객관적 결정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야
- contents of the conscious experience     -determination of
- responses by stimulus
- conditions
- mental content     - adaptive mental content
- -철학적 경험론 + 합리론(idealism)     - 실용주의철학 +
- 실험적 연합주의 + 진화론

07-2-55



- -유럽 심리학     -미국 심리학
- -심리학의 방법: 내성     -행동의 객관적 관찰
- (학자에 따라서는 내성법을 보완 방법으로 인정)
- -실험 참여자의 역할: 관찰자     - 피험자
- -연구주제: 감각, 지각 등 기초 의식현상     - learning이 심리학의 핵심 주제
- (시간경과상에서 점진적 적응= 학습)
- 학습-> 실제의 사회적, 생활 응용
- 장면 응용 현상
- (철도원의 전보 타자 기술 등)
- -덧없이 사라지는 의식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되는 기억, 지각, 주의 등의 능력이 중요
- -심리학: 순수 심리학 강조     -응용심리학 강조

07-2-56



- -철학과 생리학 사이                   - 철학과 생물학, 응용과학 사이
- - 신경생리학 발달                   - 진화생물학 발달
- -의식이 뇌생리적으로 어떻게       - 적응적 행동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중요함                   작동하는가가 중요함
- : Wundt line                   : Darwin line
- -정상 어른의 표준 심리학 연구       - 비교(동물)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건강심리, 개인차, 교육심리, 유전심리학 연구 수용, 촉진
- - 행동주의의 기초를 모두 놓음
- - 의식, 마음 = 심리학에서 배제 되어야 할 개념
- 기능주의의 한계:
- James의 미원론 수용: 마음과 신체의 병행론 수용: 의식이 때로는 신체, 행동에 영향줌
- \* 적응적 행동으로서의 마음을 강조하면서도 의식의 문제, 감각, 지각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못 버림,
- : 환원적 심리학의 존재를 털어내지 못함
- -> 이 한계 극복이 행동주의심리학의 Watson이 할 일,

07-2-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7-2장 file no.58

### 7. 기능주의: 종합 정리



- 기능주의의 3 요소:
  - 1. 심리학 = not: 심적요소, 의식의 내용, what
  - but: 심적 operations; 의식의 why, How 가 중요함
  - 2. 마음은 환경과 유기체 needs를 매개하는 작업:
    - 의식의 용도
  - 3. 심리물리적 심리학:
    - 심적 현상은 마음-신체 관계성을 항상 파악, 이해하여야 함
    - 마음-신체가 별개가 아님 -> 동물심리학 촉진
- -심적 활동의 목적은 :
  - 유기체-환경 사이의 더 좋은 적응 달성하기 위하여 경험을 manipulate
  - -Adaptive Acts :

07-2-50

기능주의의 3요소는 (1). 심리학은 심적 요소나 의식의 내용, 즉 'What'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작용(의식의 Why, How), 과정,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2). 마음은 환경과 유기체의 요구를 매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3). 물리적 심리학은 심적 현상을 마음, 신체, 관계성으로 항상 이해해야 하는데, 마음과 신체가 별개가 아니고 신체를 지닌 동물과 인간과의 연속성이 다시 한 번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능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심적 활동의 목적은 -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 [마음은 활동하는 것이며 심적 활동의 목적은 환경에 더 좋은 적응을 달성하기 위해서(Adaptable) 이루어지는, 적응의 문제이고 다윈의 문제이며 실용주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동기와 자극이 있어서 감각 상태가 있고 반응이 나오면 상황변경이 나오고 동기가 자극을 대체하고 회피하게 하고 이것은 각각 별개의 단위가 아니라 잘 연결된 행동들의 연결 고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의 고리를 연결해야하는데, 이걸 내성과 객관적 관찰 같이 실험법을 같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험법 중심으로 하고, 객관적 관찰 실험법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어린이, 비정상자, 원시인 등을 다 연구하고 주관적 내성법은 고도로 훈련된 능력 있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 <motivation stimuli> -> sensory states -> response  
-> 상황변경 -> 동기화 자극 제거, 대처, 회피
- 이 자극-> 반응 연결은 단일 단위가 아니라 잘 연결된 행동시리즈
- - 학습을 일으킴
- - 효과법칙 의존
- 연구방법:
  - 내성과 객관적 관찰(실험법) 같이 사용하여야, 그러나 실험 강조
  - 객관적 관찰(실험)법 - 동물, 어린이, 비정상자, 원시인 연구
  - 주관적 내성법 - 고도로 훈련 받은 능력있는 사람

07-2-82



- -기능주의 : 미국의 프래그마티즘과 연결되어
  - 응용심리 발전시킴: - 교육심리, 산업심리, 임상심리, 정신건강,
- - 행동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식 이론적 체계화에 반발
- -> 기능주의 점차 탈학파적 무색화
  - → 행동주의 심리학

07-2-81

기능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와 연결되서 응용심리를 발전시켜서, 교육심리, 산업심리, 임상심리, 정신건강심리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식 이론적 체계화(분트-티치너의 심리학 체계)에 반발해서 기능주의가 점차 탈학파적, 무색화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 : 하나의 독립된 통일적인 심리학 이론체계라기 보다는 심리학과 철학, 동물학이 연결된
- 철학적 가정, 심리학적 연구 전략, 목표 등에 대한 관점,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 심리학이 행동 연구 과학이 되었고, 철학보다는 생물학과 밀접히 연결되고,
- 내성법은 필요시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 의식에 대한 관심은 행동에 대한 관찰, 기술, 설명, 예언, 통제의 개념으로 옮겨짐
- => 이제는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이론체계로 선언할 사람이 필요하게 됨
  - => Watson

07-2-66

### 7-2장 file no.61

기능주의는 하나의 독립된 통일적인 심리학 이론체계라기 보다는 심리학과 철학, 동물학이 연결된 철학적 과정, 심리학적 연구전략, 목표 등에 대한 관점,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 심리학이 행동 연구 과학이 되었고 철학보다는 생물학과 밀접히 연결되고 내성법은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의식에 대한 관점은 행동에 대한 관찰, 기술, 설명, 예언, 통제의 개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식의 분석, 요소의 분석, 내용의 분석, 그런데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기능, 행동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객관적 실험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변화해가는 흐름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선언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J. B. Watson이었고, 왓슨에 의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 7-2장 file no.60

기능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와 연결되어서 응용심리를 발전시켜서, 교육심리, 산업심리, 임상심리, 정신건강심리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식 이론적 체계화에 반발해서 기능주의가 점차 탈 학파적, 무색화 되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 행동주의 구조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식은 행동주의가 아니라 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 7-2장 file no.61

기능주의는 하나의 독립된 통일적인 심리학 이론체계라기 보다는 심리학과 철학, 동물학이 연결된 철학적 과정, 심리학적 연구전략, 목표 등에 대한 관점, 태도라고 할 수 있겠고, 심리학이 행동 연구 과학이 되었고 철학보다는 생물학과 밀접히 연결되고 내성법은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의식에 대한 관점은 행동에 대한 관찰, 기술, 설명, 예언, 통제의 개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식의 분석, 요소의 분석, 내용의 분석, 그런데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기능, 행동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면서 객관적 실험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변화해가는 흐름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선언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J. B. Watson이었고, 왓슨에 의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끝내게 되었는데, 이번 주 강의에서 앞서 이야기한 [구성주의]는 기능주의나 행동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좋지 않은 반발해야 될 틀을 제시해서, 거기에 반발해서 기능주의 심리학이 나오게 되었고, [기능주의 심리학]은 조금 산만하게, 철학들과 연결된 그런 관점이었고, 행동과 기능을 강조한 것인데, 그것이 잘 조직화되어서 뚜렷한 심리학 체계로 잡힌 것이 그 다음에 얘기할 [행동주의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성을 왓슨의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7주 2회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주-2회차 학습 정리



- 1.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은 의식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의식의 내용 요소의 분석보다는 의식의 과정, 기능에 초점이 있었다
- 2. 기능주의 심리학이 형성된 배경에는 당시의 철학에서의 실용주의, 미국사회의 일반적 특성 등의 영향이 있었다
- 3. 기능주의는 분트의 심리학이 의식의 내용 분석과 내성법에 강조를 둔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동의 과정 / 기능의 분석과 객관적 실험 연구에 강조를 두었다.
- 4. 기능주의 심리학에 의해 미국심리학에서 의식 분석이 주 과제의 위치에서 배제됨으로써 행동주의 심리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었다.

07-2-66